

분단을 치유하는 소통의 해설사

김 이 경(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계간지 『농촌과 목회』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로서는 농촌과 목회를 연결시킨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까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으로 필요하고 또 실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간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북지원단체의 하나인 겨레하나 사무총장으로 남북민간교류협력사업을 한 지 올해로 12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제가 금강산, 개성, 평양, 신의주 등 북을 다녀온 횟수는 아마 100번은 넘을 것 같고, 어느덧 가장 북을 많이 다녀온 사람들 측에 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북인도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아리랑 관광, 금강산 1만 2천 지킴이 사업, 남북영상협력, 풍물교류, 학술교류 등 무수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와 북이 함께 지은 공장도 어린이 영양빵공장, 육류, 모란봉 국수공장, 장류공장, 항생제공장, 치과병원, 돼지농장 등 꽤 다양한 편이지요.

12년의 대북협력사업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저는 어느새 남북의 민간교류의 해설사, 통역사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원고청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요청을 받고 어떤 글을 써야 도움이 될까 고민했는데, 전문적인 글 보다는 제가 복을 드나들며 생각하게 된 종교와 종교인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인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편지글의 형태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편지는 기독교 목회자로서 공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과도 꽤 많은 방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개인적 소감을 몇 자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독교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저의 소신 때문이라기보다는 세인에 오르내리는 요즘 큰 교회들에 관한 소문과 관련되어 형성된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헌금들을 모으는 때 그럴듯한 부(富)의 축적 수단이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모아진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교회의 세습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들..... 그런데 아마 실제로는 이 계간지 발간에 참여하시는 목회자분들은 기독교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 어려운 농촌에서 사람들과 함께 희망의 복음을 일구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 몹시 반갑고 고마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계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교목 선생님의 얼굴이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나름 열심히 일주일에 한번 채플시간도 좋았고, 성경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런 인연인지 저는 성경공부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신 부모님의 손을 이끌려 중 3때부터는 조계사 불교학생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기독교와의 인연은 끝나게 되었지요.

대학 때까지 불교학생회에 적을 두다가 학생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더 이상 종교와 연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살아오는 동안 기독교나 불교냐에 상관없이 종교를 생각하면 저의 마음은 마치 고향집같이 푸근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종교는 때론 십자군 전쟁처럼

인간을 상처받게 하는 분쟁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에게 행복과 치유의 계기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북한을 오고가며 대북지원사업과 통일운동을 하는 직업을 갖다보니,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같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민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비타협적인 논점을 잘 치는 반면 종교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참으로 넉넉하고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용서'를 생활화하신 탓인지, 어린양을 인도하려는 구도자의 모습 탓인지, 처음에는 멍충맹충한 태도에 다소 화가 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의 진의를 알게 되면 그 따뜻한 기운에 감화를 받은 한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마 특정 종교를 선택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일을 할 것이지만, 그래도 종교인들의 고운 심성은 늘 제 마음 한자락 위로의 안식처가 될 것 같습니다.

『농촌과목회』를 보니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협동조합 운동과 농민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을 위해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삶을 가꾸고 개척해 가는 열의가 느껴집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니 저희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함정이 다시금 상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중과 함께 예측을 반대하고 민중을 위해 복무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사이 독단과 아집에 사로잡히기 쉽겠지요 (지난 번 『농촌과목회』 54호 권두언에서 모 진보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그러한 경향을 불식하고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 그분들과 삶을 함께 개척해나가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며, 그것만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과 사회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농촌과 목회』라는 계간지를 함께 만드시고 소통해 나가시는 모습이

야말로 그 어떤 사상과 신념, 종교적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참 신앙인 참 지성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분들과 함께 전개하는 통일운동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보았습니다. 북한에도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선교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원인은 사회주의가 원래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유물론적 입장에서 생성된 사회체제다 보니 다원주의 사회인 대한민국과 애초 국가적 이념이 다른 탓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의 건국과정에서 기독교계의 급격한 반대를 겪은 탓도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등 개혁 과정에서 당연히 자본가 계층의 반대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교회도 중산계층의 입장을 반영하여 북한의 급격한 사회개혁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 상처의 흔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를 빙자한 북한 반체제 선동유인물이 몰래 뿌려지는 것을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김정일 세습정권을 타도하고 하느님의 천국을 이루자는 내용으로 이것이 어떻게 참 종교의 본질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우리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대부분 북한의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척 강합니다. 비록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화가 부족하여 식량을 제대로 구입할 길조차 막막하여 아이들은 영양부족에 시달리긴 하지만, 지도자와 함께 고난의 행군을 같이 겪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종교인들이라면 어려움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게 반체제 운동을 하라고 선동하기 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꾸밈없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축복해주고 아이들에게 부족한 식량을 지원해주면서, 그들이 선택한 자주국가와 자립경제의 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의 봉수교회를 찾았을 때, 그곳에서 만난 신자들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북에서는 종교인들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종교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기가 좀 죽어 있는 편인데, 남쪽에서 현실적으로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역시 기독교가 제일이라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지며 덩달아 자신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종교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북한 종교인들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경험담을 들려줄 때, 이런 심성을 가진 북한 신자들의 종교적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야 말로 또 다른 독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북에서 어떻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농촌과 목회』를 공유하시는 목사님들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을 기울여 도와주시면서 또 북에 가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설파하는데 치우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런 노력들이 축적되다 보면 북한 정부도 종교에 대해 좀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정부와 대립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은 남한처럼 종교의 천국(?)은 아니지만 북 정부도 남쪽 종교인들이 북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북민간교류가 자칫 정치적인 오해도 받기 쉽고, 더구나 남쪽에서는 국가보안법 등으로 탄압을 받고 쉬운데, 종교인들의 영역에서는 다소 자유로운 까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남북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종교인들과의 만남으로 남북민간교류의 숨통을 찾기도 하면서, 평양에서의 합동 기도회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한 종교인들이 기껏 북에 와서 종교를 빙자하여 반체제 유인물을 돌린다든지 하는 활동은 북에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북한사회가 아직도

채 극복하지 못한 종교와 국가권력과의 해묵은 상처를 다시 들쭉지게 합니다. 이렇게 종교적 오해가 가중될수록 북에서의 선교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종교인들이 북에 가서 그들의 사회적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고, 분단의 상처에 대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북의 경제적 어려움을 치유해주는 일에 적극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북한 사회에 주님의 참된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북이 종교에 대하여 좀 더 개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리한 풍토를 만드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농촌과 목회』를 읽으시는 목회자님들께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과의 교류를 단순히 북음을 전파하는 조건을 창출하는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여년간 북을 드나들며 제 자신을 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스로가 비교적 진리에 열려있고, 다양한 가치의 장점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성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그들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얼마나 남한식의 가치에만 깊숙이 몰입해 있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 정말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오가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공정하게 두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시험대에 올라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민주주의를 갈구해 학생운동에서 시작해 시민사회운동을 계속해온 활동가로서 지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북의 경제적 궁핍을 대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가 잘 버티어 낸다는 것에 대하여 흠칫 놀랄 때가 많습니다. 과연 북한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말처럼 강성대국을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이 자신들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교역할 수 있을지, 또 함께 경쟁하면서도 그들만의 자주성과 그 순수성을 고수할 수 있을지를 계속 되묻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북한의 권력이 강압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인지 생생하게 마주볼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에게 이윤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와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경제적 궁핍이 눈에 보이는 북한에서 그 주민들에게 그보다 더 높은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실재하는지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응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하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 안에 그만큼 내재화된 사회적 이데올로기부터 자유롭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과 고민은 제 자신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물젖어 있다고 깨닫는 동안, 그리고 우리와 다른 하나의 사회를 나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씨름하는 동안, 저는 조금씩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며, 그런 낡은 짐들을 내려놓는 그 자리를 사회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갖는 아름다운 풍경들로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10년의 세월 속에서 저는 어느 사이 남과 북의 사람들의 마음을 제법 그럴듯하게 소통해주는 해설사가 되어 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과 목회』를 공유하시는 목회자님들께 진정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남과 북을 잇는 소통의 해설사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재개되겠지요. 그러면 정말 활발한 민간교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간교류가 통일에 얼마나 기여할지, 또 얼마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중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교류의 길을 열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어 분단을 치유하는 해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지금처럼 인도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북한에 분배 현장을 확인을 사전에 각서로 받으라는 통일부의 왜곡된 정치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남과 북의 사람들은 보다 긴 분단의 극복과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